

2019년 6월 시청자평가원 활동실적

방송사명(법인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 개최

- 일시 및 참석인원 '해당사항 없음'

일시	참석인원		
	시청자평가원	시청자위원회	방송사측
-	-	-	-

2. 시청자평가프로그램 운영 실적

- 프로그램 명 : 바로보는TV 음부즈맨

- 편성시간

기존	본방송 매주 일 04:00~04:30(재방송 매주 월00:30~01:00)
변경	해당사항 없음

- 방송현황

평가원명	방송일	방송 주요 내용	비고
김창숙	6/2	<라이브투데이>,<출발640>,<뉴스메이커>,<뉴스09>	
이재원	6/9	<뉴스11>,<뉴스13>,<뉴스20>,<뉴스워치>	
이정훈	6/16	<뉴스리뷰>,<뉴스투나잇>	
김홍태	6/23	<뉴스특보>,<뉴스센터12>,<뉴스포커스>,<출발 640>	
김창숙	6/30	<뉴스09>,<뉴스18>,<뉴스리뷰>,<뉴스메이커>	

3. 시청자평가원 변동사항 '변동사항 없음'

구분	성명	전·현직	평가원 선임일	비고 (변경사유 등)
활동	김홍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심사위원/ 변호사	2018. 06. 28	-
활동	이정훈	대진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15. 11. 26	-
활동	이재원	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교수	2016. 08. 23	-
활동	김창숙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2018. 12. 27	-

붙임 : 1. 평가원 진술 및 답변내용 1부.

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1부.

<평가원 진술 및 방송사측 답변 내용>

방송일시	평가원명	평가원 진술내용	답변내용
2019 6/2(일)	김창숙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미정상통화내용유출과 국회공전으로 5월 민생입법처리가 실종위기에 처했다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5월 9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강호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면서 강호상 의원의 폭로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할만한 내용인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판례를 소개하면서 예측가능한 판결 결과나 법리적인 검토를 제공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공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도내용이 국가기밀이나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에 머물게 되는데, 한미 대통령간의 통화내용이 노출된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간의 관계나 외교면에서 문제는 없는가 하는 파생효과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강호상 의원에 한미 정상 통화내용에 공개에 대해서는 양측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기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해 양측의 주장을 담으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추후 발생할 문제나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추후라도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욱 심층적인 보도를 하고자 힘쓰겠습니다.
2019 6/9(일)	이재원	지난 3일 우리 정부가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선체 수색을 위해 잠수 요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중수색을 이미 시도했던 헝가리 잠수 요원이 경험한 수중 상황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잠수 요원이 침몰 선박의 선체 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다뉴브강 속으로 들어간 장면을 전하며 당시 수심이 6.2m로 산업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있	좋은 평가를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리며 자막이 겹치는 등의 아쉬운 부분은 주의를 기울여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는 깊이인 4m보다 깊었다고 헝가리 잠수사가 말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결국 잠수사 한 명이 물속으로 힘겹게 내려갔지만, 바닥에는 닿지도 못한 채 올라와야 했다며, 이에 따라 헝가리 측은 수중수색 대신 배의 인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숙과 수심 등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수중수색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보도 초반부터 화면의 출처를 'Associated Press'로 표기해 정확히 취재원을 밝혀 주어 보도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한 자막 아래 뉴스의 내용을 요약한 자막이 겹쳐져 일부 글자가 가려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막끼리 충돌할 때에는 위치를 조정해야겠습니다.	
2019 6/16(일)	이정훈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특히 현지 수색 활동의 어려움이나 현지 수색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색 활동의 진척 상황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번	이번 헝가리 침몰 사고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취재하고 보도를 이어나가야할지 논의와 고민이 많았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도를 최대한으로 줄인 이유는 세월호 사건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피해자 가족분들의 상실감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부 고민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사고로 큰 아픔을 겪은 이들의 상황을 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을 공감합니다. 지적하신대로, 피해자의 현 상황과 부족한 점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사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도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체 수중 작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와 우리 대응팀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집중 보도 취재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판단됩니다. 추후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참고하겠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9 6/23(일)	김홍태	.지난주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의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1,412건을 적발했음을 전하면서, 렌즈세정액을 직접 눈에 넣을 경우 눈이 다칠 수 있으므로,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3이나 출발640보도처럼 미세먼지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사이트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점검이 있었는데요, 초중고등학교 과학실의 ‘눈을 세척하는 도구’임에도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액체는 눈에 직접 넣어서는 안 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이라는 내용은 충격적 이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광고가 엄격하게 규제 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 요즘 화두인 미세먼지 관련 의약품의 점검이 필요했다라는 멘트가 있었음 더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건수가 500건 이상이라는 점과 의약품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300건 이상이라는 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 보이고,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 리포트에는 식약처가 미세먼지 질환 관련 제품들이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이트들을 단속한 결과를 소개하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들 제품과 달리 의약품의 경우 사전심의 같은 광고 규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관련 보도 때 참고하겠습니다.

		이러한 점검이 있었음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2019 06/30(일)	김창숙	6월 18일 <뉴스리뷰>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올해 여름부터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 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산업통상자원부 에 권고했는데, TF는 이 방안과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 등 3개 개편안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보도에서 아쉬웠던 점은 TF의 최종권고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채택된 것인지, 시청자 각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이 채택된 것인지 등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이 많이 전달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이번 권고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기적으로도 문제해결의 해법이 될만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분석도 제공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당시 전기요금 관련 TF에서 3가지 누진제 개편안 가운데 최종안을 채택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여름철 매달 가구당 만원 정도 인하 혜택을 본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보도에 앞서 3가지 개편안의 장단점을 다뤘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향후 관련 보도 때 참고하겠습니다.

[붙임2]

<시청자평가원 방송원고>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19. 06. 02 방송) : <바로보는 TV 음부즈맨 392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한미정상통화내용유출과 국회공전으로 5월 민생입법처리가

실종위기에 처했다며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5월 23일 <라이브투데이>에서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공개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 의원에겐 통화 내용을 전달한 사람이 강 의원의 고교 후배 외교관이라고 전하며,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인 외교관 K씨가 7일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을 열람하고, 강 의원에겐 관련 내용을 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유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5월 24일 <출발640>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통화 내용 유출을 명백한 국가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곧 당사자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는 청와대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공익 제보라는 한국당 측 주장에 대해 “공익제보의 성격을 고려할 때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으며, 휴대전화 감찰 역시 불법이 아니라고 못박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구걸 외교를 들켜자 공무원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으며,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도 알권리 차원에서 통화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으나,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이 “당파적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쳐선 안된다”고 말하는 등 한국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역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같은날 <뉴스메이커>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사태를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결국 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강효상 의원의 행동은 국가의 외교 근본 자체를 흔들고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국가기밀이라 판단한 이유가 무엇이나며 역공에 나서며, “국가기밀로 분류할 만큼 내용이나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한다. 자가당착적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해명하는 것이 먼저…”라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인터뷰내용을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쟁에 대해 5월 25일 <뉴스09>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입장을 전했습니다. 공식 외교일정으로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에 주OECD 한국대표부에서 한국언론 특파원들을 만난 강 장관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상대국과의 민감한 일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케이스로 보인다”며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법적인 공방으로 번지면서 강효상 의원의 폭로내용이 국가기밀에 해당할만한 내용인가가 중요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법조인들을 초청하여 국내외 판례를 소개하면서 예측가능한 판결 결과나 법리적인 검토를 제공했다면 시청자들이 사안의 심각성 정도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정치권 공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도내용이 국가기밀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쟁에 머물게 되는데, 한미 대통령간의 통화내용이 노출된 만큼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간의 관계나 외교면에서 문제는 없는가 하는 파생효과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많이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5월 26일 <뉴스18>에서는 선거제와 사법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에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국회파업 장기화로 5월 국회 소집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안과 각종 민생법안 처리는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29일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지난 주말이 국회 정상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의 수차례 회동에도 불구하고 이견만 확인한 자리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의총을 통해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회담 통화 유출 의혹까지 겹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대립상황이 더 첨예해지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이 5월 내 임시국회를 소집해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당정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고, 처리가 시급한 각종 법안들도 먼지만 쌓이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5·18 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유치원 3법 등의 처리는 기약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5월 27일 <뉴스1번지>에서는 국회 정상화 조건을 두고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를 설명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국회 파행의 책임을 한국당에 돌리며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였고, 이해찬 대표는 “장외집회도 끝났으니, 한국당이 제발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고 추경도 통과시키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한국당이 원하는 게 국회 복귀의 명분인지, 장외투쟁의 명분인지 모르겠다며 물아세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7일 ‘1차 민생 대장정’을 끝마친 소감 등을 밝힌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들을 국회에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다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렸다고 전했습니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 실정’에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0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 당내 별도의 위원회를 꾸려 정책 투쟁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국회는 올들어 3월 딱 한 달을 제외하고는 4개월 동안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25일 <뉴스18>에서는 4개월 허송세월 기간에도 세비는 국회의원들 통장에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 정곡을 찌르는 속 시원한 뉴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는 뉴스가 많이 보도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정치권은 몸싸움과 막말로 일손을 놓고 있는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이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니, 연합뉴스TV가 정치권을 향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압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뷰나 여론조사 등 여러 방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26일 <뉴스14>에서는 세계보건기구 WHO가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제11차 국제질병표준 분류기준안은 오는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회의의 보고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논의는 실생활에서 건강 등에 위협이 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기존 질병분류 기준에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시작되었으며, 10여년간의 논의 끝에 지난해 11차 최종 기준안이

마련되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11차 기준안의 특징은 건강을 위협하는 인자에 대한 분류를 세분화한 것으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항목에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해 기준을 제시했는데, WHO는 지속성과 빈도, 통제가능성에 초점을 뒀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을 통제하지 못한 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것 등으로 판단한다고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질병코드가 부여될 경우 각국 보건당국은 질병 관련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며 관련 예산을 배정할 수 있게 된다며 30년 만에 개정된 이번 분류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WHO의 결정에 대해 같은날 <뉴스11>에서는 국내 게임업계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게임학회·협회·기관 등 88개 단체로 이뤄진 공동대책준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WHO의 게임장애 질병코드 지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공대위는 2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차후 국회 면담·관계 부처 공식서한 발송 등 국내 도입 반대운동 실행 계획을 밝힐 예정임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스13>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내에서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부는 의학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과 함께 의학적으로 게임중독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게임중독 진단기준과 예방·치료 대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임을 중독으로 분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논쟁이 여러 차례 치열하게 진행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 게임업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논쟁에 참여했었는데, 마약이나 도박과 달리 일반인들도 광범위하게 게임을 즐기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WHO의 결정으로 어쨌든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이 이슈와 관련해서 앞으로 치열해질 논쟁에서 주체들간의 갈등 프레임만을 강조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들을 담아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19. 06. 09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93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원샷>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헝가리 다뉴브강의 유람선 침몰과 관련된 소식과 방탄소년단의 영국 공연 현장 등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소식 관련 연합뉴스tv에서는 헝가리 다뉴브강에 취재기자를 급파해 현장 연결 등을 통해 헝가리 정부 당국의 대응방안과 구조현황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뉴스13'은 지난 3일 우리 정부가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유람선 선체 수색을 위해 잠수 요원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중수색을 이미 시도했던 헝가리 잠수 요원이 경험한 수중 상황을 전했습니다. 헝가리 잠수 요원이 침몰 선박의 선체 수색을 시도하기 위해 다뉴브강 속으로

들어간 장면을 전하며 당시 수심이 6.2m로 산업 잠수사들이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인 4m보다 깊었다고 헝가리 잠수사가 말하는 모습을 전했습니다. 결국 잠수사 한 명이 물속으로 힘겹게 내려갔지만, 바닥에는 닿지도 못한 채 올라와야 했다며, 이에 따라 헝가리 측은 수중수색 대신 배의 인양을 선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속과 수심 등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어 수중수색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현지 상황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특히 해당 보도는 보도 초반부터 화면의 출처를 'Associated Press'로 표기해 정확히 취재원을 밝혀주어 보도의 투명성을 확보했습니다. 다만, 출처를 표시한 자막 아래 뉴스의 내용을 요약한 자막이 겹쳐져 일부 글자가 가려진 점이 아쉬웠습니다. 자막끼리 충돌할 때에는 위치를 조정해야겠습니다. 이어 3일 **뉴스위치에서는**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의 **합동 브리핑을 연결해** 라이브로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양국의 사고 담당자들이 사고의 상황을 발표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이 모두 전해졌습니다. 대변인에 따르면 신고 당시에 접수된 장소와 충돌한 장소가 동일하지는 않았습니.사고가 발생한 뒤에 구조작업에 참석한 인원은 당시 621명이었으며, 내무부 산하 공공안전 담당 실장과 부다페스트 헝가리 경찰청장, 재난방지청장, 대테러센터장 등이 재난에 대한 협의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변인은 발표 시기까지 생존자 7명이고 사망자 7명이며, 사망자는 모두 한국 국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실종자로 판명된 인원은 21명이고 그중에 2명은 헝가리 국적의 헝가리 국민이라고 전했습니다. 총 158명의 경찰과 47대의 자동차, 16대의 작은 배, 2대의 경찰 소속 헬기가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호를 운전한 선장은 검거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침몰한 선박 허블레아니호를 인양의 업무를 하고 있는 내무부 산하 대테러청장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허블레아니호의 기본 정보와 다뉴브강의 상태 등을 브리핑했습니다. 또한, 잠수와 인양의 가능성에 대한 입장, 그동안의 구조작업 등을 설명했습니다. 잠수사의 위험과 장비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곁들였습니다. 민간인의 참여, 오스트리아 체코 등의 지원, 한국에서 참여한 특별신속대응대표단에 대한 소개도 했습니다. 헝가리 대테러청장의 이같은 설명에 이어 주헝가리 대사관 국방무관이 한국 국민과 정부를 대표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는 헝가리 정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사고 이후 나흘이 지나 유실된 관광객들의 시신이 듀나강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점이라 듀나강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한국 관광객으로 추정하는 시신이 발견하게 되면 당국에 주민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그리고 우리 구조대원의 안전을 고려해서 인양작업 위주로 이번 작전을 판단하신 헝가리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의 작전요원들도 선내에 들어가도록 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뉴스20'에서는** 한국 정부 합동신속대응팀 현장 지휘관인 국방무관이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으며, 한국인으로 추정된다는 '속보'를 전해 헝가리 소식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국방무관이 "현 지점에서 102km 떨어진 하르타 지역에서 외관

상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가 현지 주민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브리핑을 하는 현장을 영상과 함께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이처럼 현장 연결, 속보, 외신 인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국민의 관심사인 헝가리 소식을 다각도로 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었습니다. 헝가리의 사고 소식만큼이나 전국민의 공금증을 모은 방탄소년단의 영국 공연 소식도 자세히 전했습니다. 먼저, 지난 2일 ‘뉴스11’은 방탄소년단이 세계적인 공연장인 런던 웹블리에 한국 가수 최초로 공연을 열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더 알엠은 헝가리에서 유람선 침몰 사고에 애도를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방탄소년단이 외신에 비틀스에 빗대 인용되는 점을 의식한 듯, 방탄소년단이 비틀스를 연상시키는 회색 정장을 입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들이 기회가 된다면 영국의 대표적인 뮤지션 폴 매카트니, 골드플레이어와 함께 작업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더 알엠과 제이홉, 진이 소감을 말하는 모습은 물론이고, 현장을 찾은 해외 취재진의 모습을 담아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영상 구성이었습니다. 이어 지난 2일 ‘뉴스13’은 방탄소년단이 웹블리에서 6만명의 관객 앞에서 연 콘서트 현장을 런던 현지에서 직접 전했습니다. 거대한 포병 두마리가 길을 터주자, 댄서들 사이로 방탄소년단이 모습을 드러내는 오프닝 모습은 현장감을 더욱 살렸습니다. 리더 알엠의 화려한 랩을 시작으로 멤버들이 함께 댄스를 추고, 관중석에선 고막이 찢어질 듯한 함성이 터져나오는 현장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해당 보도는 방탄소년단이 무대에 등장하면 팬들은 자리에 앉는 법이 없었고, 응원봉을 손에 든 채 한국어 가사를 또박또박 따라 불렀다고 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디오니 소스’ ‘페이크 러브’ ‘아이돌’ 등 히트곡을 비롯해 멤버들의 솔로 무대 등을 선보이며 150분간의 공연을 다채롭게 채웠고, 알엠이 “UK 차트에 올랐을 때 정말 놀랐으며 런던의 팬들이야 말로 방탄소년단이 살아있는 증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방탄소년단이 한국 가수 최초로 세계 공연의 성지로 런던 웹블리에서 공연한 사실을 영국이 낳은 전설의 스타 비틀스, 퀸, 엘튼 존 등을 비롯해 마이클 잭슨, 비운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거쳐간 무대를 밟으며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의미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연합뉴스TV는 방탄소년단의 런던 공연 전후로 맥락을 짚어주는 보도들도 마련해 한류에 대한 이해를 도왔습니다. 먼저 공연 전인 5월31일 ‘뉴스센터12’는 런던 현지에서 열린 공연 사전 행사를 스케치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팬들이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만 보고도, 익숙한 듯 한국어로 가사를 따라 부르고 춤을 추며 순식간에 파티를 벌이고, 멤버들의 본명을 외치는 한국식 응원도 능숙하게 선보이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가사를 쓰고,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기에 음악에 힘이 있다는 영국 팬들의 인터뷰도 촘촘히 취재했습니다. 이어 공연 후 3일 ‘뉴스센터12’는 런던의 한류 바람을 짚어줘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보다 심층적인 뉴스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해당 보도는 런던 한복판에 위치한 구글 스튜디오, 케이팝 댄스 클래스 등을 찾았습니다. 먼저, 구글 스튜디오는 구글이 구독자 1만명 이상 유튜버에게 제공하

는 작업실이었는데, 이 곳에서 케이팝 스타들의 신곡을 소개하는 19살 유튜버가 작업할 수 있을 정도로 케이팝이 인기라는 사실을 전하고, 유튜버의 인터뷰도 삽입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한류가 중국과 일본을 거쳐 유럽과 북미 등 전 세계를 향하기 시작한 것은 2010년 이후라고 진단하며, 이 즈음 주영 한국문화원에 ‘케이팝 아카데미’가 신설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케이팝을 비롯해 한국의 역사, 한글, 패션 등 문화 전반을 배우는데 학기당 30명씩 7년간 4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취미로 케이팝 댄스 클래스를 운영하는 한국문화원 졸업생이 8년 전 처음 교실을 시작할 때는 수강생들이 10명도 안 됐지만, 지금은 60명이 올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변화를 짚어주었습니다. 매달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등 하나의 주제를 정한다고 밝힌 클래스 운영자의 인터뷰도 유럽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실감하게 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비틀스와 엘튼 존을 배출한 영국이 대중문화를 선도한다는 자부심과 함께 새로운 문화에 대한 포용성을 가졌기에 한류도 뿌리내릴 수 있었다는 점, 한류가 변방이 아닌 대중문화 시장의 중요한 행위자가 되었다는 주영국대사관 문화홍보관의 발언 등 영국 내 한류의 인기를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인기 비결을 방탄소년단 내에서만 찾는 게 아니라, 한류의 포괄적인 현상으로 맥락을 짚어준 점이 돋보인 보도였습니다.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19. 06. 16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94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지난 주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실종자들의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제주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큰 슬픔과 충격을 빠졌던 한 주였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헝가리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차분하게 보도하였습니다. 6월 3일 <뉴스리뷰>에서는 유람선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헝가리 사고 현장을 찾았고 유족들은 현지 대학병원 시신 안치소를 찾고 국내 운구와 장례 절차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모든 외교 채널과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총 동원하고 구조와 수색상황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고, 사망자의 장례지원과 생존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에도 성의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사고 현장 점검을 마치고 돌아온 강경화 외교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헝가리 당국은 물론이고 주변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수색에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6월 4일<뉴스리뷰>에서는 어제 수습한 시신 2구가 한국인 실종자로 최종 확인되었고 가족들에게도 통보됐다고 전했습니다. 다뉴브강의 상태가 호전되면서 헝가리 잠수부들이 먼저 투입되었고, 우리 측은 작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시신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수습은 우리 대원들이 수행할 것으로 전했습니다. 우리 측 장비가 도착하면 본격적인 수중 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 시계 상황이 나아

지만, 수중 드론을 투입한 선체 내부 상황 파악을 통해 선체 진입 등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중 수색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헝가리 측이 여전히 잠수부들의 선체 내부 진입은 금지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면서 현지 대응팀이 헝가리 측과 수색에 대한 견해차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공조모드는 어느 때보다도 좋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 실종자가 사고 지점에서 100킬로미터 넘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면서 우리 정부는 헝가리 국경 내는 물론이고, 다뉴브 부근 하류 지역까지 수색 반경을 넓혀나가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헝가리와 다시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적극적 협력을 거듭 구하기로 했고 정부는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는 먼저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유족들과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가해 선박에 대한 압류 방안을 현지 사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사고를 낸 크루즈선 선장도 가급적 구속된 상태에서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헝가리 측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보도에서는 바닷속 물체 탐지 장치, 소나를 통한 촬영과 구글 지도를 합성한 결과, 헝가리 다뉴브강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는 머르키트 섬과 강변의 중간 위치에 침몰한 채로 모습을 거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헝가리 당국은 안전을 이유로 선체 수중 수색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의 수색과 인양을 둘러싼 난제가 산적한 가운데 공개된 이미지를 토대로 실종자 수색 작업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헝가리 현지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헬기 2대로 다뉴브강 사고 현장으로부터 왕복 150km에 달하는 강 하구까지를 둘러보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도 진행되는 가운데 일부 가족은 가해 선사와 선장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신원이 확인이 된 사망자들 운구와 장례 절차도 논의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어진 보도에서는 이번 유람선 침몰사고와 관련해 유람선 침몰사고가 난 헝가리 다뉴브강 위 머르키트 다리에 수백 명의 헝가리 시민들이 모여 아리랑 노래를 따라 부르고 다리 위에는 사고를 추모하는 촛불과 국화꽃 그리고 태극기까지 걸려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헝가리 국민들은 다뉴브강 주변과 주헝가리 대사관 앞 추모의 촛불과 국화꽃, 손편지를 놓고 한국인 관광객들의 안타까운 참사에 애도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월 5일<뉴스리뷰>에서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발생 이후, 정부는 일주일째 대책반 회의를 열고 사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고 가족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논의를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례 절차와 시신 운구 방법에 대한 논의도 구체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피해 가족들은 부검은 원하지 않고, 국내 운구가 이뤄지는 대로 바로 장례절차를 진행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다뉴브강은 최근 내린 비로 강물이 불어난 데다, 강변으로는 숲과 늪지까지 있어 수색이 쉽지만은 않아 보인다고 전하면서 수중 수색이 어려운 상황에서, 헬기를 활용해 세 번째 실종자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강의 흐름을 따라 비행하는 중간 중간, 보트로 수상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고 경찰 헬기도 낮게 날며 강 위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헬기와 경비정, 보트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이뤄지고 있다는 합동 수색, 인양을 위한 준비는 5일부터 시작되지만, 이와 별개로 수상 수색은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이어진 보도에서는 지난 이틀간 발견된 시신 5구는 모두 유람선 침몰사고 한국인 실종자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날 발견된 시신 2구까지 실종자로 확인되면 남은 실종자는 12명으로 줄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정부 대응팀이 선체 인양을 위한 사전작업을 시작했고 가라앉은 선체를 최종적으로 끌어올릴 대형 크레인선 클라크아담도 건너오고 있는 만큼 수중작업도 한층 더 분주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머르키트 다리 뒤쪽에서 침몰 유람선을 끌어올리겠다는 게 헝가리 당국의 계획인데 수상 수색과 관련해 우리 대응팀의 배는 총 5척이 됐고 그중 큰 선박은 하루 종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운영 헬기 2대 포함 총 세 대의 헬기에 우리 대원이 함께 탑승해 작전을 수행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인양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실종자들이 훼손되거나 유실될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파손된 선체 중간 부분 출입문 일부에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게 헝가리 당국의 설명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에서는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발생한 유람선 침몰 사건의 실종자 수색 작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침몰 사건은 외국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사건이지만 많은 한국인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라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주목을 받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해외, 특히 유럽으로 가는 국내 여행자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여론의 관심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외국에서 발생한 대형 해양 사고이기 때문에 취재와 보도 과정에 제약을 많았던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번 보도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게 수색 작업의 진행 현황을 보도하고 정부와 현지에 파견된 대응팀의 활동이나 현지 주민들의 분위기 등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한 보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지 수색 활동의 어려움이나 현지 수색팀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함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색 활동의 진척 상황이나 성과에 대해서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보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의 사망자나 실종자가 아닌 피해자들에 대한 보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던 점을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현지에 남아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한 지원 등이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이번 사고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보도 내용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선체 수중 작업에 대한 헝가리 정부와 우리 대응팀과의 입장 차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고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고 제안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주 연합뉴스TV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경찰의 결정을 전하고 이에 따라 피의자 고유정씨의 얼굴과 신상을 보도했습니다. 6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시신 수색과 함께 범행동기 등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고 씨가 전 남편 A씨의 시신을 훼손해 해상과 육지에 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시신 수색에 집중하고 있는데 유가족은 하루빨리 A씨의 시신을 찾기를 희망하며 고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 씨의 신상 정보 공개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7일 <뉴스투나잇>에서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을 경찰이 공개했는데 이번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과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의 신상이 공개 이후 올 해 세 번째라고 설명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0년 관련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범죄가 잔혹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예방 등 공익에 부합할 때 피의자가 성년인 경우에 한해서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경찰과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지방경찰청 내 심의위원회가 40여개의 세부 기준을 잣대로 판단하는데, 언뜻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을 놓고 공개 여부가 엇갈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 침해 논란도 여전하지만, 최근 10년 간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들은 모두 21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뉴스 보도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경찰이 공개함으로써 연합뉴스TV는 이번 제주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의 이름과 얼굴을 보도하였습니다.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는 피의자이지만 이번 사건의 잔혹성이나 현재 까지 수사 정황을 고려하여 경찰이 피의자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사의 관점에서 경찰의 공개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흉악범의 신상을 공개하는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경찰이 공개한 피의자에 대한 신상도 보도에서 적절하게 조절해서 공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감한 사안을 보도할 때 다른 언론사와 구별될 수 있는 연합뉴스TV만의 관점을 제시하고 관련된 쟁점을 제시했다면 해당 이슈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다 풍성한 토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이에 따라서 해당 사실을 단순하게 보도하는 것으로 언론의 책무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에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제 삼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고 토의하는 태도나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19. 06. 23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95회 -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연합뉴스TV는 지난주에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

유정에 대하여 사형청원이 10만 명을 넘었다는 것과 현재 남편이 자신의 아들 살해에 대하여 고유정을 고소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관리 용품 등의 판매·광고 사이트를 두 달간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1,400건 이상을 적발한 것도 보도했습니다. 지난 주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소식이었는데요, 범행의 잔인성 때문인지 소문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 사실확인과 주의가 필요하기도 한 부분입니다. 뉴스특보에서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피의자 고유정이 보름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엽기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고유정이 지난달 10일부터 엽기 살인을 계획했음을 밝혔는데요, 이는 범행 보름 전으로, 피해자인 전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아들 면접교섭일을 지정받은 직후였으며, 살인계획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얻었음을 전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계장이 보름 전인 5월 10일부터 계획한 걸로 추정된 것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 인터넷 검색 내역을 확인했을 때... 줄피덤 등 범행과 관련된 단어를 검색한 흔적이 확인된 것을 이유로 했습니다. 고씨는 청주에서 수면제와 범행도구를 준비해 제주로 향했으며, 펜션에서 전 남편에게 줄피덤을 먹인 뒤, 반수면 상태인 남편을 쫓아다니며 흥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제주에서 시신을 1차 훼손해 바다에 버리고, 김포에서 방진복 등을 준비해 2차 훼손해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인터넷과 마트에서 수시로 범행 도구를 구입했고, 범행 동기는 가정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장은 (전 남편이)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자기가 지금 현재 남편과 원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프로파일러들은 고씨가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했는데요, 정신병력 또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사체은닉 등으로, 경찰은 1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임을 전했습니다. 뉴스센터 12는 제주동부경찰서가 구속된 고유정을 방송 당일인 12일 검찰에 송치했음을 전하며, 검찰에 신병이 인계된 고 씨는 경찰서를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꼭 숙인 채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음을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 씨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닷새 만에 10만 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포커스는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의문사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음을 전했는데요, 청주 상당경찰서는 고 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또 2017년 재혼한 남편과의 통화 기록과 병원처방 내용 등도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고 씨의 남편은 지난 3월 아들이 숨졌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아들과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나니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출발640에서는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과 재혼한 남편 37살 A씨가 고유정이 자신의 4살짜리 아들을 살해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음을 전했습니다. 현재 피의자 고유정은 정당방

위 주장을 하고 있고 별다른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고유정은 피해자인 전 남편인과 자녀의 면접교섭 등으로 인해, 재혼한 현재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의 존재로 인한 갈등과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심신미약의 주장 가능성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범행 동기부터 과정까지 나름 상세하게 전하고 이에 대해 분석한 연합뉴스 tv 의 보도 모습은, 시청자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만 작년에도 비슷한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소위 등촌동 아파트 살인 사건의 경우인데,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자와 이혼을 한 후 자주 죽이겠다고 찾아왔었고, 경찰의 '접근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혼 후 여러 차례 가해자를 피해 이사를 다녔지만, 결국 살해당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 후의 갈등과 불안으로 인해 전처나 전남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또 동일하게 엄벌을 처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발생하는 등, 국민들이 매우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혼 후 발생하는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해 약간의 분석을 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의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1,412건을 적발했음을 전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건강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뉴스13은 미세먼지 질환 관련 용품의 의약적 효능 등을 속이거나 부풀린 인터넷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눈물과 콘택트렌즈관리 용품 등의 판매·광고 사이트를 두 달간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1,412건을 적발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임에도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의약품외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375건 적발됐다고 전했습니다. 출발640은 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의 제품 소개 내용을 보면 의약품인 인공눈물처럼 눈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주의사항에는 눈에 직접 쓰지 말라고 명시돼 있는 의약 외품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과학실에 비상용으로 들여놓는 '응급 눈세척기함'도 문제가 심각한데, '눈을 세척하는 도구'임에도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액체는 눈에 직접 넣어서는 안 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을 전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들의 판매·광고 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장 광고 1,412건을 적발했음을 전하면서, 렌즈세정액을 직접 눈에 넣을 경우 눈이 다칠 수 있으므로, 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은 의사나 약사에게 문의하고 구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스13이나 출발640보도처럼 미세먼지 관련 의약품의 온라인 사이트 허위 과장광고에 대하여 점검이 있었는데, 초중고등학교 과학실의 '눈을 세척하는 도구'임에도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액체는 눈에 직접 넣어서는 안 되는 콘택트렌즈 세정액이라는 내용은 충격적 이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사람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받을 필요성이 있으며, 이러한 이

유로 이번에 요즘 화두인 미세먼지 관련 의약품의 점검이 필요했다는 멘트가 있었을 더 좋았을 것입니다. 특히나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건수가 500건 이상이라는 점과 의약품외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도 300건 이상이라는 점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이 더 강해 보이고, 다른 의약품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검이 있었을 좋겠다는 마무리 멘트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지난주 생생네트워크에서는 퇴촌의 토마토 축제 현장에 캐스터가 직접 나가 풀장에서 토마토를 으개는 등의 즐거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생생네트워크에서는 요즘 제철인 토마토는 영양분이 더 풍부하다면서, 토마토 축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뉴스캐스터가 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캐스터는 그동안 먹거리로만 접했던 토마토가 다양한 볼거리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축제 참가자 모두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제철 맞은 토마토를 즐기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퇴촌 토마토 축제 현장의 하이라이트인, 풀장에서 토마토를 으개며 즐기는 이색 체험을 소개했는데, 참가자들이 토마토 풀장 속에 감춰진 보물이 적힌 쪽지를 찾아내는 황금 토마토를 찾아라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도 보도했습니다. 캐스터는 현장에 오시면 토마토를 시중보다 저렴한 값에 구입할 수 있고 토마토의 영양을 100% 섭취할 수 있게 다양한 활용법을 선보이는 토마토 요리경연대회 등 알찬 프로그램도 접하실 수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요즘 제철인 토마토의 퇴촌 축제 현장을 전하고 있는데, 특히 풀장에서 토마토를 으개며 즐기는 이색 체험과 참가자들이 토마토 풀장 속에 감춰진 보물이 적힌 쪽지를 찾아내는 황금 토마토를 찾는 이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을 보도했습니다. 시청자들의 건강을 챙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내용을 전하고 있는 토마토 축제 현자 보도는 여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청자들에게 기분 좋은 휴식을 내어준 보도였습니다.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19. 06. 30 방송) : <바로보는 TV 옴부즈맨 396회 - '연합 뉴스TV를 말한다'>

국회 앞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월 21일 김명환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민주노동당 위원장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다섯 번째인데, 법원은 김 위원장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것을 구속영장 발부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정부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노정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관련 뉴스를 비중 있게 다루었는데, 6월 22일 <뉴스09>에서는 김 위원장의 구속 소식을 자세히 보도하였습니다. 김 위원장은 “노동문제 해결을 내세웠던 정권이 무능과 무책임으로 정책 의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한 뒤, 민주노동당 위원장은 개인이 아닌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고 말한 뒤, 7월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4차례에 걸쳐 국회 앞에서 집회를 주최하였고, 참가자들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차단벽을 넘어 국회 경내에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다고 구속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같은날 <뉴스19>에서는 이번 구속에 대한 정치권의 엇갈린 반응을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은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입장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고, 보수 야당은 당연

한 결정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엄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은 시대착오적 귀족 노조라며 민주노총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노동현실 시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구속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하고, 김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6월 23일 <뉴스18>에서는 김 위원장 구속을 ‘노동탄압’으로 규정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집권 이후 노선을 바꿨다는 민주노총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 구속 이후 긴급회의를 소집한 민주노총이 전면적인 투쟁 계획을 확정할 가운데 6월 24일부터 크고 작은 집회가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18>에서는 민주노총이 고강도 투쟁에 나서면서 노정관계는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대화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에 대해 노동계의 자발적인 수용을 끌어내기도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노총이 갈등 관계로 가면서 정권 초기 순조로웠던 노정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995년 민주노총이 창립된 이후로 참여정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권에서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김명환 위원장의 구속이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문제인 정부 초기에 호의적이었던 노정관계가 적대관계로 돌아섰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사이가 좋았던 둘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 둘간의 대립이 흥미로운 지점일 수는 있으나 연합뉴스TV를 포함하여 언론들은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지나치게 노정관계의 갈등상황과 관계변화를 부각시켜 보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사와 정부가 대립하는 근본 원인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슈의 문제이며, 김 위원장의 구속도 타당한가의 문제이지 정부와의 관계가 좋으나 나쁘나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속여부와 갈등상황을 전달하는 단편적인 뉴스를 벗어나 연합뉴스TV라도 노정관계가 이토록 악화된 원인과 관련 주체들이 제기하는 주장들의 타당성 분석, 합리적인 해결방안과 전망 등을 제시하는 심층적인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18일 <뉴스리뷰>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반복되는 전기요금 폭탄 걱정이 올해 여름부터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덜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트포스 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개편안을 확정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권고했는데, TF는 이 방안과 누진 단계 축소안, 누진제 폐지 등 3개 개편안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TF는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전기료 인하 혜택이 돌아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했다며, 누진 구간 확대 방안을 적용하면 지난해 사용량 기준으로 가구당 전기료가 한 달에 1만142원씩 줄어드는데, 할인 혜택은 1,629만 가구가 보게 되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는 TF 설명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전기를 쓴 만큼 요금을 내는 누진제 폐지 개편안은 사용량이 적은 가구의 요금이 오를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안에 개편안을 인가해 다음 달부터 새로운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누진제 개편안 시행을 앞두고 한전 수익 악화와 소액주주들의 불만으로 인해 정부와 한국전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20일 <뉴스메이커>에서는 소액주주들은 한국전력이 이사회에서 여름철 전기료를 깎아주는 공급약관 개정안을 의결하면 경영진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고 보도했습니다. 일각에선 전기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한전 수입이 2,800억 원가량 줄어 정부가 1,000억 원 안팎을 지원하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지원 규모와 방식은 확정된 건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공기업인 한전의 정관과 전기공사법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돼 있어 시장 논리만 따져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그럴 바엔 증시 상장을 폐지하라는 주장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 21일

<뉴스메이커>에서는 배임혐의로 소액주주들이 고소할 가능성 때문에 한국전력 사외이사들이 이사회에서 반대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난관에 부딪혔고, 3천억원 가까운 부담을 누가 질 것인지를 놓고 기 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한국전력 이사회는 전기요금 누진제 관련 기본 공급약관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TF의 요금 할인안에 한전은 난색을 보여왔는데, 1분기만 6천억원대 적자를 냈는데 요금 할인에 따른 부담 2,800억원을 또 떠안기 힘들고, 요금 인하를 요구한 정부가 재정 지원방식과 규모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부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전은 요금제 개편안 의결이 배임에 해당하는지 법무법인에 검토를 의뢰하고,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과 임원 배상보험 처리까지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개편 요금제의 다음 달 시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한전은 조만간 임시이사회가 다시 열린다 해도 정부의 구체적 지원안이 없는 한 의결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의 이번 보도에서 아쉬웠던 점은 TF의 최종권고안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누진제 개편안을 둘러싼 난제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채택된 것인지, 시청자 각 가정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게 되는지, 형평성 있게 혜택이 돌아가는 안이 채택된 것인지 등 시청자 입장에서 궁금한 내용이 많이 전달되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또한, 여름철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주는 이번 권고안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장기적으로도 문제해결의 해법이 될만한 내용인지 등에 대한 분석도 제공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6월 22일 <뉴스17>에서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과 같은 일이 광주에서도 발생해 경찰이 30대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하고 성폭력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보여주며 긴급했던 순간을 설명했습니다. CCTV 화면에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한 남성이 20대 여성의 팔을 붙잡고 따라가자, 여성이 황급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남성을 뿌리친 뒤 집으로 들어가려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성은 손까지 집어넣으며 문을 닫는 것을 막았고, 여성이 들어간 뒤에 문 앞에서 인기척을 확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9살 김모씨는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는데, 경찰은 즉각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김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15분간 지켜보며 범행을 계획했고, 초인종을 눌러 피해 여성이 잠들었는지를 확인까지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성관계가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는데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여성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를 때 비밀번호를 적어놨고, 여성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잠들면 다시 침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이전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부축하면서 지갑을 훔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찰이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21일 <출발640>에서도 하룻밤 사이 여성 2명을 현관까지 뒤따라간 31살 김 모 씨를 붙잡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18일 저녁과 다음 날 새벽, 술에 취해 여성들을 쫓아 빌라 현관 앞까지 가거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다가 피해 여성들이 먼저 들어가거나 어디까지 가느냐고 다그치자 현장에서 도망쳤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조사한 뒤 성추행을 목적으로 침입한 혐의를 추가하거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최근에 혼자 사는 여성을 타겟으로 주거침입을 시도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 전반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합뉴스TV는 사건 내용뿐만 아니라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보도와 나중에 범죄자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까지를 전달하여 이러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대표 방송스틸컷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19년 06월 02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19년 06월 09일 04시 / 이재원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일시/장면설명</p>
<p>2019년 06월 16일 04시 / 이정훈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2019년 06월 23일 04시 / 김홍태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p>일시/장면설명</p>	
<p>2019년 06월 30일 04시 / 김창숙 시청자평가원 연합뉴스TV를 말한다</p>	
	